

시론



박준수 시인·경영학박사

희경루 중건 계기로 광주 역사성 되살려야

안응수가 다시 중수하였다. 희경루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광주읍성이 헐리면서 함께 없어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희경루 방회도'가 동국대 박물관에 남아 있어 희경루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희경루 방회도'는 1548년 조선시대 과거시험 증광시 문·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1577년 희경루에서 만나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다. 광주시는 이 '희경루 방회도'를 토대로 광주공원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공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마침내 희경루의 옛 모습을 재현하게 되었다. 희경루는 준공 후 광주문화재단 산하 전통문화관이 관리를 맡아 국악공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경루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사업의 '하늬점정'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 이유는 누정 자체의 역사성은 물론이고 빈약한 광주의 관광자원을 풍성하게 일으켜 세우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희경루는 비록 원래의 자리에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 역사 지맥의 중요한 결절점에 들어서 있다. 희경루는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멀리하는 무등산, 가깝게는 충장로와 금남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뷰포인트(view point)이다. 뿐만 아니라, 희경루 주변에는 풍류한 역사문화 자원이 널려 있다. 먼저 인근 양림동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쪽 언덕배기에 자리한 전통주거지역으로 가장 핫(hot)한 관광지이

다. 근대기 광주의 부자들이 이곳에 집을 마련하거나 정자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은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광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광주사직공원에는 양파정이 있다. 가까이에 위치한 시민회관과 광주공원 일대에는 광주향교와 비림(裨林), 서오층석탑, 시비 등이 산재한 역사공원이다. 또 바로 앞에 흐르는 광주천변에는 석서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광주장터와 한말의병장 기념관이 일부분에게 처형된 곳으로 알려진 광주교가 있다. 이처럼 희경루는 사직공원 일원 양림동-광주향교 일원의 광주공원-광주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주역사벨트의 꼭짓점에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희경루 일대는 광주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전통과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도보로 걸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옛 도시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 빈약한 광주의 역사관광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희경루 복원을 계기로 점-선-면의 차원에서 접근해 구 도심 일대 역사 스토리를 발굴하고, 아울러 광주읍성 유적들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단순히 누각 건물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주변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누각 이름처럼, 복원된 희경루가 광주의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세우는 상징물이 되길 기원한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으로 착수한 광주 대표 누정인 희경루 중건이 오는 6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라도는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남의 해양도와 전북의 강남도를 하나로 합쳐서 탄생한 행정구역이다. 그로부터 천년이 된 2018년,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 건축물을 복원키로 했는데, 광주시는 조선시대 광주읍성 안에 있었던 희경루를 새롭게 짓기로 한 것이다. 희경루는 조선시대 객사에 딸린 누정으로, 현재 충장로 옛 광주우체국 자리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경루 방회도'를 토대로 옛 모습 재현

희경루에 관해서는 조선시대 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수주(申叔舟)의 기록이 실려있어 이를 통해 대략의 연혁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광주읍성 북문인 공북루가 허물어진 지 오래된 후, 1451년(문종 1년) 군수 안철석이 부임해 옛 공북루 터에 새로이 누각을 짓고, 이름을 '희경루(喜慶樓)'라 칭했다. 당시 희경루는 남북이 5칸, 동서가 4칸으로 그 넓고 웅장하기가 조선에서 제일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86년에 목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꿈같은 시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40명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결과, 3명의 '비혼주의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았다. 아니 희망했다. 다만 당사 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198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니, 30살 시절의 미혼율은 1989년생 남성의 경우 37.8%였는데, 89년생 남성에서는 73.5%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89년생은 13.8%에 불과한 반면, 89년생은 53.3%로 증가했다. 20년 사이에 30살 시절 미혼율이 남성은 두 배, 여성은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답변은 안정된 직업과 소득, 자산을 갖춘 '가족경제'라는 경제적 기반 위에 결혼과 출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럼 출산하고 나서는 행복한 것일까? 필자는 두 명의 아이와 가정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4살, 둘째는 얼마 전 100일이 지났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로 의료 인프라, 면역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각종 질병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문을 노크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의 실태는 어떤가? 현재 소아청소년과 예약은 전장이다. 아침부터 진료 대기 번호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줄 서는 모습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됐다. 얼마 전 마스크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아이들을 돌보는 개인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한다. 아이의 음울을 달래며 병원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야 하는 현실은 언제 쫓 바뀔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돌봄. 필자가 정식 출근과 퇴근을 하는 직장인 아닌 불규칙한 업무시간, 잦은 야근으로 인해 평일에는 장모님께서 육아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 만약 장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둘째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맞벌이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맞벌이를 선택한 가정에서는 이 돌봄의 문제가 가정의 행복을 가르는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유엔인구기금은 한국의 출산율 정책 중 부정적 사례들을 언급했다. 15년간 200조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사를 통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시 합계 출산율은 0.08명 증가했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시 합계출산율은 0.008명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확대가 현금성 지원보다 3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정책보다는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설립 등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산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 청년도 살 만한 사회를 만들고, 아이가 있는 가정도 꿈꿀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와 가정 그리고 아이에게 행복과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살만한 대한민국, 살만한 우리 광주가 되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년칼럼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

합계출산율 0.78명.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5명 이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수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마쳐 꿈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주변 청년들을 통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와 '기술 자신이 없어서'이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하기 힘들기 때문.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에게는 아마도 당연한 답변일 수도 있겠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있다. 연애는 물론이거니와 결혼까지.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출산과 육아에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선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내 삶이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발간한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호칭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호칭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질 수록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소외감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이나 ○○씨, ○대리님 등 우리 주변 모두가 사용하는 평범하고 무난한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싶다. 우리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등 문제로 우리의 이웃으로 융화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평범하게 국내에 정착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고군분투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고 우리사회 소중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고 호칭 하나에서부터 고민해 보자. <김덕형·무안경찰서 통탄치안센터장>

독자투고

흔히 현 시대를 탈북민 3만명 시대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힘겹게 사선을 넘어와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정을 꾸리고 어엿한 사회적 지위도 가지며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과연 적절할까 살펴보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평소처럼 습관화 되어 그들을 부르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듣기에 불편하다면

社說

깜깜이 광주시 도시계획위 운영 전면 혁신해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계획위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가 그 사례가 된 것이다. 아울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도 발벗고 나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토론회를 연 정다운(더불어민주당, 북구2) 의원은 "대규모 개발이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구단위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를 거쳐 수조원의 막대한 이익이 결정되고 있음에도 깜깜이 밀집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일었다. 당연히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혁신이 시급하다. 광주시가 외부인 일부 참관 허용을 끝자로 관

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각종 부동산 개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열린 행정 이대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 핵심적 부분으로 제한해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면적 공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삶과도 밀접하다. 민주 의식도 향상됐으니,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례로 이어져야 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정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술 전문직에 치중돼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사퇴를 표명하면서 보듯 위원 구성에 있어 문화나 방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의 참관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회의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 적정 생산 유도 전략작물 전환 선도하는 전남

전남 농정의 최대 화두는 소비 위축과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적정 생산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남은 5만5천133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규모는 13만2천240ha에 달했으며 시·도별로 전남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2만5천157ha, 경남 1만1천802ha, 경북 9천185ha, 충남 5천208ha 순이었다. 연령별론 40대 이하 청년농이 14%로 일반 비재배 농업인 40대 이하(38%)보다 3배 높았다. 청년 농업인이 식량 자급을 향상과 미래 정책에 관심이 높고 농촌 활력의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최근 논에서 벼보다 쉽게 콩을 재배해 역대 소득을 올리는 청년이 화제를 날기도 했다. 나주 세제면 알곡영농조합법인의 최정웅 대표로 콩 옥묘와 정식 기계화 등을 통해 연간 300여 톤을 생산, 쌀 가격보다 높은 연매출 52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논콩을 파종부터 병충해 관리,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과 영농 대

행까지 도와주며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밭작물 벼 재배를 줄여 안정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전략작물이란 식량 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 안정,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증대에도 충분한 보탬이 된다. 전남도는 올해 쌀 재배를 지난해 15만4천ha보다 7천여ha를 감축한 14만7천ha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과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 등에 48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도(農道) 전남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기 파종 및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벼 대체 작물 전환을 선도하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인플레이션 속 OECD 내 3%대 물가 상승률은 한국 포함 5개국

국가	인플레이션률
스웨덴	2.6%
그리스	3.0%
일본	3.5%
한국	3.7%
룩셈부르크	3.7%
캐나다	4.4%
미국	4.9%
벨기에	5.6%
프랑스	5.9%
G20 평균	6.5%
독일	7.2%
OECD 평균	7.4%
영국	7.8%
이탈리아	8.2%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남뉴스